

韓國民謠의 隱喻와 想像力

張 瑄 鎭

目 次

- | | |
|-----------------|----------------|
| I. 序 言 | IV. 想像力에 의한 昇華 |
| II. 民謠研究 再考 | V. 結 言 |
| III. 情恨의 隱喻的 表現 | |

I. 序 言

民謠研究의 시각은 오래고 여러 측면에서 論議되어 왔다.

오늘날 民謠는 機能的인 面에서 本來의 機能인 勞動, 儀式 遊戲의 機能은 거의 喪失되어 가고 있다. 非機能謠는 一定한 生活上의 機能은 없고 노래의 즐거움 때문에 불렀다. 따라서 오늘날 民謠는 거의 非機能論化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民謠가 共同體 性格에서, 이제는 民謠를 노래하는 대신 읽고 있다. 이 民謠(詩)와 讀者의 關係에서, 個人的 文學으로 되어가고 있다 할 것이다.

傳承 民謠의 蒐集 整理 作業은 一段階지났다. 이제는 文字에 固着된 民謠는 共同體의 所有에서 個人的 文學으로 移行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民謠를 文藝學的 측면에서 問題되는 心象, 想像力 隱喻의 問題를 論議해서 詩論의 處地에서 民謠를 詩로서의 價値를 찾아 볼만하다.

II. 民謠研究 再考

民謠研究는 그 目的이나 動機가 國家政策上 또는 民俗學의 一分野로 시작 되었으며, 유럽에 있어서는 擬古典主義의 反動으로 民謠를 蒐集·整理하게 되었다.¹⁾

民謠와 더불어 發生·發展해 온, 傳統的 農耕法·原始的 手工業과 固有信仰·鄉土娛樂 등이 産業革命後에 發達한 機械文明에 밀려 急激하게 變貌됨에 따라, 傳統文化와 더불어 民謠도 衰退, 湮滅되어가게 되었다. 여기에 「모든 學問的 要求에 따를 수 있는 民謠集 編纂의 義務²⁾」를 느끼게 되고, 研究가 活潑해 졌다. 民謠를 文學的인 方法, 民俗學的인 方法, 音樂的인 方法등 여러 面에서 研究하게 되었다.

民謠를 民族의 原初의 詩歌로서 生成意味 追求와 傳播·傳承 過程을 考究하게 되었다. 「民謠는 個人性이 沒却되고, 그것들이 共同體에 대한 呼訴였으며, 共同體에 의하여 채용되고, 일단 채용된 뒤에는 世代에서 世代로, 世紀에서 世紀로 繼承³⁾되어온 民族의 遺産으로서, 그 價値가 認定되고, 그 特質 究明은 여러 角度에서 行해져 왔다.

Herbert Read가 「詩의 起源」⁴⁾에서 民謠가 共同體의 性格을 지니고, 繼承되어 온 理由를 다음과 같은 特質을 들고있다.

1) ㉠ 18世紀末 19世紀初에 걸쳐 全 유럽의 文學과 思想을 支配한 낭만주의 운동의 徵기를 만든 비숍·피어씨의 英國 古歌謠遺篇과 프란시세스·화일드의 英蘇民族 踏謠集, 마팅외일드 敎師의 西部의 民謠와 譚歌, 막스·프라드렌다의 獨逸民謠曲集 등의 民謠集이 많이 나왔다.

㉡ 抽稿·民謠傳承考(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 16집)

2) 마이어가 1905年 가을 뉘른르크에서 開催된 第1回 독일민속학회에 있어서 「모든 學問的 要求에 따를 수 있는 完備한 민요집이라곤 오늘 날까지 편집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 民俗學은 이와 같은 民謠集의 編纂을 자기 義務라고 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제의했다.

3) 鄭漢模, 現代詩論(서울, 普成文化社, 1979), p. 161.

4) 詩의 起源: The Beginning of Poetry. 「Phases of English Poetry」
鄭漢模, 上揭書, pp. 162, 3 參考

- 1) 敘述의 鮮명한 直接性(a clean directness of narrative)
- 2) 리얼한 具象化를 위한 明確性(the definiteness)
- 3) 超自然的 要素의 援用(a supernatural element)
- 4) 不幸하고도 悲劇的인 사랑의 深刻한 哀恨(悲劇的 人生觀)(deep complaint of unhappy, tragic love)
- 5) 語句의 反復 또는 後敎의 技巧 (repetition or refrain)

이와 같은 民謠의 特質은 英國民謠의 特質만이 아니라, 韓國民謠의 特質이라고도 할 수 있다.

韓國民謠의 文學的인 面의 研究에서는 內容的인 面과, 形式的인 面에서 주로 이루어 졌다.

內容的인 面에서는, 첫째 婦謠가 量的, 質的으로 優勢하다. 우리의 家族制度에서 오는 시집살이의 苦惱와, 母女間의 깊은 愛情과, 童女歌에 나타난 純淨味 등의 表現에서 높은 詩精神을 찾을 수 있다. 둘째 農謠의 뛰어난 點이다. 民謠의 發生을 勞動說에 둔다면, 農業國家였던 우리 民謠에 農謠가 많은 것은 當然하다. 婦謠가 <恨>을 노래했다면 農謠에서는 人間의 本能에 대한 率直한 吐露가 強하다 할 수 있다. 셋째 階級的·社會的·制度的 不滿에 대하여 諷刺와 揶揄, 弄談으로 웃어넘긴다. 自己救濟의 方法으로 諧謔性은 우리 民謠에 하나의 性格을 이룬다. 넷째 不幸하고도 悲劇的인 生活과, 사랑의 哀恨이 깊게 갈려 있다.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儒敎의 順從性이 몸에 밴 착한 우리 民族性은 自己慰安의 方法으로도 노래 불러 왔다. 民謠가 갖는 自足性이 잘 나타 나 있는 것이 우리 民謠이다.

形式的인 面에서는 語句의 反復과 後敎의 技巧가 뛰어 나 있다. 아름다운 韻律, 慣用句내지 愛用句가 많다. 3,4調, 4,4調의 韻律이 우리 民謠에 優勢하다. 또 다른 側面에서 본다면 鄉土色이 뚜렷하지 않고, 舞蹈性에서 離脫되어 있는 것 등의 特色을 찾을 수 있다.

共同體 性格으로 傳承된, 現傳民謠가 이제는 共同體的 性格에서 文字에 固定되어져, 民謠 讀者의 處地에서 보면 個人的 文學으로 되었다.

이 民謠에서 文學的 要素를 찾는다면 먼저 <말>을 文字로 記錄해 놓은 것

으로 限定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民謠의 文學的 構成分子인 <말>, 이것이 우리가 民謠를 文學으로서 研究하려는 企圖에 直接 關與하는 것이다. 現代詩論에 있어서도 가장 基本的인 命題가 「詩는 言語藝術」이라는 데 있다.

「詩가 言語를 媒材로 하는 藝術樣式이라면, 詩의 모든 重要的 構造的 原理는 言語의 측면에서 論議되어야 한다. 詩에 대한 現代的 論議란 結局 詩를 言語的 局面에서 構造的으로 논의함을 의미한다. 이 때 浮刻되는 中心의 概念들이 詩語, 이미저리, 隱喻, 象徴, 原型, 아이러니이다. 이상 여섯가지 개념은 詩의 構造的 特性을 理解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要素들이다」⁵⁾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民謠를 詩論을 援用하여 考察해 볼 만하다. 이 때까지는 民謠를 文藝學的인 面에서는 소홀히 다루워 온 것 같다.

詩의 定義의 歷史는 誤謬의 歷史라고 할 만큼, 여러 側面에서 詩를 把握하려는 努力을 하고 있다. 앞에서 言及했듯이 「詩의 本質은 詩 構成의 各個 要素를 綜合的으로 分析하는 데서 把握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詩를 構成하고 있는 言語의 特質을 究明하고, 構造的 形態를 分析하고, 觀念과 情緒 등 詩 內容에 관한 探究를 통해서 비로소의 本質에 가장 近接할 수 있다」⁶⁾

庶民들의 生活과 情緒의 反映인 民謠를 詩의 本質에 近接할 수 있는 方法中 譬喻와 想像力을 通해 詩와 比較하여, 未分化 狀態의 綜合藝術이란 民謠에서 詩로서 價値를 찾아 보고자 한다.

II. 情恨의 隱喻的 表現

敘述의 心象

詩의 心象에는 敘述의 心象과 譬喻的 心象이 있다. 譬喻的 心象에는 直喻 隱喻 象徴 諷喻 등이 있다.

5) 李昇薰, 詩論(서울, 高麗苑, 1979), p. 82.

6) 鄭漢模, 土揭書, p. 15.

敘述의 心象이란 心象 그 自體를 위한 것이다.

꽃을송거 꽃을송거
 사랑앞에 꽃을송거
 무정한동생은 어디가고
 하초완상 안하는고

※ 하초—花草

(口民 111)

위의 詩(民謠)에서 <꽃> <사랑앞> <동생>은 이 語彙를 통해 다른 心象을 表現하려는 것이 아니고, 各各 그 自體를 말하기 위한 心象이다. 여기서는 이 語彙들을 누가 使用해도 <꽃>, <사랑앞>, <동생> 以上の 心象은 아니다. 一般的인 使用者들이 共通的으로 標準 意味로 使用된다. 이런 言語를 文字上(literal)言語라 한다. <꽃>, <사랑앞>, <동생>들의 心象들이 모여 동생을 그리워하는 鮮명한 情景를 그릴 수 있다. 그로 足하다. 이들 背後의 觀念이나 思想을 그 以上 追求할 것은 없다. 이런 心象이 敘述의 心象이다.

그러나 敘述의 心象은 獨特한 어떤 雰圍氣를 表現하기도 한다.

어—노 어—노
 어한이넘차 너—노
 어—노 어—노
 어한이넘차 너—노

(口民 501)

가가저겨고교구구그기
 라랴러려로로류류르리

(韓何雲의 詩)

앞의 例에서는 哀歡 悲愁의 雰圍氣를 느낄 수 있다.

측어적(literal)이미지로는 <어—노, 어한이넘차> 등에서는 軍號인 것 뿐이다. 여기서 이 敘述의 이미지로써는 느낄 수 없는 이미지를 聽覺의 이미지에서는(물론 이때 聯想作用에서 이지만) 喪輿를 매고 가는 상두군의 소리를 듣는다. 喪頭군 소리에서 느끼는 雰圍氣는 悲愁와 哀歡이 있다.(都市

에서 出生 生長한 世代는 喪頭가락을 모르니 聯想作用이 일어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다)

위의 例에서는 諺文의 本文 二行이라는 心象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곧이 한글이 아닌 諺文) 그러나, 이 詩에 <개구리>라는 詩題를 붙였을 때(例文: 韓何雲 <개구리>의 全文) <개구리>라는 叙述的 心象에서 우리는 새로운 雰圍氣를 느낄 수 있다.

와글와글 울어대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가갸거겨고교구구그기>로 表現한 데서 小學校 1學年 教室을 聯想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詩人은 개구리 울음에서 小學校에 諺文을 서토 먼저 외우려던 體驗을 이미지化하여 이루워 놓은 것으로 이해되던 <개구리>라는 心象에서 새로운 雰圍氣를 느낄 수 있다. 이런 面에서 叙述的 心象은 어떤 雰圍氣를 表現하게 된다.

譬喻的 心象

詩로 表現되는 手段은 言語다. 詩語도 그 語彙 하나 하나가 이미 固定된 概念을 가지고 있다. 文字上(literal)言語다. 詩人이 表現하고자 하는 複雜微妙한 感動을 効果的으로 表現하기 위해서는 文字上의 言語 自體가 가진 個別, 具體的인 感覺의 作用을 통한 暗示와 象徴의 性格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素材로서의 文字上 言語를 譬喻的인 方法으로 使用하게 된다. 이 때 直喻, 隱喻, 擬喻, 諷喻 등 여러 方法을 使用한다.

譬喻에서 表現하고자 하는 主體를 元觀念이라 하고 元觀念에 譬喻되는 것을 補助觀念이라 한다. 譬喻는 元觀念과 補助觀念을 잇대어 比喩하면서 그 類似性을 따로 說明하지 않고 補助觀念이 原觀念을 대치시킨다. 이것은 言語機能을 擴充하려는 必然的 慾求에서 이루워 졌다. 이러한 譬喻的 方法이 詩에서만 아니라 우리 民謠에서도 使用되고 있는가를 보자.

直喻的 表現

「A는 B와 같다」의 形式이다.

補助形容 「~같은, ~처럼, ~같이, ~인양…」 등을 媒介로 어떤 狀態를

보다 具體的으로 表現된다.

이는 譬喩法의 基本的인 方法으로, 本義와 喩義가 表面에 뚜렷이 나타 나 있다. 現代의 文章表現에서는 말할 것 없고 古典에서도 直喩法을 많이 쓰고 있다.

물밑 흥운을 헤아고 큰실오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여 기운이
 진홍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그름밤에 보는 숲불빛
 같더라. 一意幽堂 金氏 <東溟日記>에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다할 만큼 直喩가 動員되어 바다에서 해돋이 壯
 觀을 리얼하게 表現하고 있다.

새악시 불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은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一金永郎 : <돌담에 소색이는 햇발같이>—

위의 例文은 鄭漢模 詩論에 그대로 引用했다. 이와 같이 古典에서 現代詩
 에 이르는 直喩는 民謠에서도 例外는 아니다.

배꽃일레 배꽃일레
 총각수건 배꽃일레
 배꽃같은 수건밑에
 초롱같은 눈매봐라7) (任民Ⅱ, {7})

모시야적삼 안섭안에
 연적같은 지젓보소
 담배씨만치만 보고가소
 만이보면 병남니더8) (口民 952)

7) 任東權, 韓國民謠集Ⅱ, 番號7.(任民Ⅱ.7).

8)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 番號 952(口民 952).

매화꽃이 폼다하면
 남편처럼 곱을소며
 국화꽃이 귀하다면
 자식처럼 귀할소냐
 저남산이 높다하면
 시어미처럼 높을소며
 뜨구름이 무심타면
 시아비처럼 무심할까
 외나무다리 어렵다면
 시형처럼 어렵으며
 갈대잎이 푸르다면
 만동서처럼 푸를손가
 털밭공단 밍다하면
 석아재처럼 미울소냐
 보름달이 밝다하면
 시누같이 밝을소냐
 감자가루 썩는다면
 내치마처럼 썩을소냐
 토만구름 많다할들
 내눈물같이 많을소냐

(任·民Ⅱ 995)

이 같은 直喩法은 民謠에서는 흔하다. ~같은 ~만치 ~처럼 등의 補助形容을 媒介로 한 本義와 喩義의 類似性을 通한 直喩로 比較되어 本義를 더 強調하고 있다.

(蛇足: 서집살이요(任·民Ⅱ 995)에서는 喩義로써 媼宅人物들의 특징을 잘 묘사 되어 있다.)

隱喩的 表現

「A는 B다」의 形式이다.

어떤 事物이나 觀念이 다른 어떤 事物(心象)과 바로 比較됨으로써 보다 具體的으로, 어떤 狀態를 알린다. 글자 그대로 隱喩는 숨겨진 譬喩로 元觀念은 뒤에 있고, 補助觀念이 表面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 詩에서 重要視되는 것은 元觀念과 補助觀念사이의 類推(analogy)의 發見이 必要하다. 이 類推의 發見은 詩人의 想像力에 根據한다.

물끼는칭칭 허러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야전복 의리들고
 첩의방에 놀러갔네

※ 물끼—물꼬

(口民 1119)

이 노래는 全體가 隱喩로 되어 있다. 元觀念은 主人에 대한 羨望이자 怨望일 것이다. 타쁜 모내기 철에 물꼬를 헐어 방금 모내기하는 관에 主人은 술안주 들고 妾의 방에 놀러갔다고만 말한다. 결으로는 怨詞 한 마디 없다. 事實을 指摘한 뒤에 숨겨진 따가운 뜻을 알 수 있다. 主人에 맞설 수 없는 머슴의 마음일까.

山川이라 妙한길에
 吉州明川 가다가니
 이름없는 꽃이피네.
 꽃아꽃아 곱은꽃아
 지지말고 기달러라.

요빌행비 돌아가서
 훗번행비 다시올때
 다시 한번 만나보자.

나는무슨 빌꽃인가
 남질적에 아니지고.

※ 빌꽃—別꽃

(民研 171)

〈古州, 明川〉은 地名이지만 〈山川이라 妙한길〉과 對를 이루워 보면 〈吉〉〈明〉에 뜻을 붙일 수도 있겠다. 밝은 〈吉地〉의 〈꿈은 꽃〉은 고운 處子임은 말할 것 없다. 〈지지말고 기다리라〉한데 대한 處子の 대답이 멋있다. 〈나는 무슨 별꽃인가 남질적에 아니지고〉하고 뒤에 말은 없다. 남이 다 시집가는데 나만 별나게 기다리겠느냐 빨리 데려 가라는 마음이 直說的인 話法보다 隱喻的 話法으로 훨씬 強하다.

저좁치 지은솜씨

銀을주랴 金을주랴

銀도싫고 金도싫고

물明絢 석자手巾

이내허리 둘러주소

(民研 274)

앞에 든 例(民研 191)보다 더 積極的이다. 물明絢 석자手巾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 婚俗이다. 老處女일런지 모르는 이 處女의 能動的인 言動이지만 隱喻的인 表現으로 되바라지지 않아서 좋다.

뒷동산 밤파는 처녀

밤한송이만 돌려주소.

외톨밤을 드리리까

쌍톨밤을 드리리까.

외톨쌍톨 내던져두고

오늘하룻밤 쉬어가세.

(任民Ⅱ 1204)

외톨 밤을 줄까 쌍톨 밤을 줄까고 하는 處女의 意識속에는 〈쌍톨 밤〉을 달라기를 期待하고 있다. 〈쌍톨〉은 〈한雙〉으로 類推된다. 〈외톨 밤, 쌍톨 밤〉의 〈밤〉을 밤(夜)으로 轉移되어 있다.

日常生活用語에도 隱喻的 表現이 많다. 俗談 格言같은 것은 大體로 死隱喻가 많다.

二八青春 少年들아
 白髮보고 웃지말아
 어제 青春이건마는
 오늘날 白髮이네.

(民研 104)

白髮이 老人의 死隱喩임은 말할 것 없다. <어제 青春이건마는>은 歲月이 流水 같다는 隱喩보다 더 實感을 느끼게 한다. 人生無常을 表現한 隱喩的 表現이다.

서울갓든 선부님네
 우리선부 안오든가
 오기사 오네마는
 七星板에 실려오네

※선부—선비

권마성은 어데가고
 상여소래 웬일인고
 일산入대는 어데가고
 명전공포 저웬일고

※명전. 공포—銘旌. 功布

광단이불 대담노는
 들이덜자 지였드니
 혼자덜기 누물나네

원앙수침 잡벼게는
 들이벼자 하였드니
 혼자벼기 눈물이네

※ 잡벼게—잡벼게

소이졌네 소이졌네
 벼게넌에 소이졌네
 그걸사사 소이라고
 겨우한쌍 오리한쌍
 쌍쌍이 떠드르네

※소이졌네—滔가졌네

※겨우—겨워

(口民 2333)

여기 七星板은 棺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이 本義이지만 오히려 喻義로 쓰이고, 本義는 죽음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本義와 喻義가 置換된 것이다.

科擧 及第하여 돌아 올 男使이 及第는 커녕 屍身으로 돌아 온다는데 이 女人의 사무친 恨은 어디에서 풀 것인가, 그저 혼자 벼게밭에 눈물이 고여 沼를 이루게 되도록 운다. 여기에 雙雙히 짝지어 떠 들어 오는, 오리 거위가, 어찌 그리움의 表現이 아니겠는가.

擬喻的 表現

現代詩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生物 無生物을 人間으로 換置한 것이며, 非現實을 現實化하거나, 擬人化를 通하여 警句的으로 쓰인다. 擬人法은 對象에 대한 愛情의 表示이기도 하다. 擬人法 외에 擬態法 聲寫法도 있다. 이들의 特徵은 機知가 橫溢하고 才氣發刺하다. 多分히 諧謔味가 있어 人間의 心性을 누그러떨인다.

「사십 사십 대사십아
출기 靑山 老사슴아
바로서서 약받어라.」

이내 一身 작별하면
慶尙監司 進上밖에
그우에 더하겠소」

「앞에섰는 砲手님요
뒤에섰는 砲手님요
金포순지 李포순지
姓은자세 몰라해도
날잡아서 뺏하겠소」

「앞다리는 가지스면
平安監司 進上밖에
그우에 더하겠소」

「人間거게 害치든가
곡식거게 해치든가
無主空山 열매먹고
罪없이도 사는줄생

「이내肝을 내었으면
砲手님의 안주밖엔
이내겉질 다라스면
도련님의 까천가죽
애기시님 열매가죽
덕이시님 꿀미가죽

이만우에 더하겠소]

참아두고 못죽겠소]

「이내뿔을 빼었으면

「돌아가소 돌아가소

巫堂님의 송시밖에

砲手님요 돌아가소

활앙님의 작지밖에

金砲手도 돌아서고

그우에 더하겠소]

李砲手도 돌아서소]

「아혼아홉 골짜

「國事에도 私情있소]

골짜마다 새끼있어

(경북 안동 民研 80)

아혼 아홉 골짜, 골짜마다 새끼가 있어 못 죽겠다는 사슴의 哀願과 呼訴가 있다. 女性의 自歎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苛斂誅求에 시달리는 庶民들의 生活를 노루에 빗댄 것인지는 關係없다.

作詩의 動機와는 關係없이 이 詩를 읽는 讀者의 經驗의 質에 따라 그 內容이 달라질 수 있다. 隱喩는 詩人의 想像力과 그 詩의 이미지와 讀者의 想像力과의 만남에서 바슐라르가 말하는 “魂의 울림”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多彩로울 수 있는 特質이 隱喩의 特質이기도 하다.

擬喩는 民謠에서는 소위 打令調에 많다. 사슴, 노루, 토끼, 새, 재비, 개, 멧꿩이 등을 擬喩하거나 感情 移入한 作品들이 많다.

現代詩와 하나만 比較해 보면

산은 사람과 친하고 길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를 올라간다.

金玼燮 〈山〉에서

〈山〉을 生命化하는 데 그치지 않고 人格化, 生命화된 山의 內面에 詩人의

智慧와 洞察의 세계가 깃들여 있다.⁹⁾

民謠에서나 現代詩인 <山>에서나 모두 擬人法을 썼고 主題인 本義는 뒤에 숨어 있다.

諷喻的 表現

① 두껍아 두껍아

네등이 와그렸노
全羅監司 살적에
기생첩을 많이해서
왕이올라 그렇다

두껍아 두껍아

네손바닥이 와그렸노
全羅監司 살적에
장기바둑 많이뛰서
못이백허 그렇다

두껍아 두껍아

네눈이 와그렸노
全羅監司 살적에
술군불군 많이먹고
붉힌눈이 남아있네

(口民 2258)

② 순사나리 개나리

나리중의 개나린
봄동산에 피였는데
순사나리 궁둥이엔
개가왕왕 짓누나

(口民 1566)

9) 鄭漢模 : 上揭書p.39.

- ③ 來日모래 配給所
 오락가락 面事務所
 또나왔다 稅務所
 냇자긱자 警察署 (임동권 민요사, p. 25)

- ④ 여게꽃고 저게꽃고
 主人네마누래 저게꽃고
 꽃기사 꽃아시나
 陰달이저서 필똥말똥. (口民 951)

이 民謠들은 諷喩的이다. 諷喩의 本領은 元觀念은 나타나지 않고 補助觀念으로 暗示한다. 暗示的이기에 受容者쪽의 態度에 따라 濃度가 달라진다.

① 뚜꺼비에 假託한 노래는 官僚의 非行을 辛辣하게 諷刺하고 있다. <창>이 올랐다고 揶揄하는 이면에는 官吏의 不道德한 生活에 대한 批判精神을 볼 수 있다. ② “순사나리”에서는 “나리”란 말의 重義的인 用法에서 抑壓된 民衆들의 소리를 듣는다. 순사나리 中庭이에는 놀란 동내 개가 왕왕 짖고, 먼 발치로 따라 나선다. ③ “내일모래 配給所”에서도 官에 시달린 百姓들이다. “냇자긱자 警察署”에서 더욱 그렇다. ④ “主人네 마누라”에서는 지독한 毒說을 볼 수 있다. 主人에 대한 화풀이가 毒說로 나타났다. <꽃기사 꽃았지만>과 <陰달이저서 필똥말똥>에서 “꽃다” “필똥말똥”은 詩語의 曖昧性으로 볼 수 있겠다. 이때 讀者의 想像力에 結付되어 意味가 多樣해 질 수 있다.

以上 譬喩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譬喩法의 兩大方法은 結局 直喩와 隱喩이다. 隱喩는 廣義로는 譬喩의 全部라 해도 좋겠다.

Ⅲ. 想像力에 의한 昇華

「想像의 自由는 人間의 가장 重要한 機能이며 權利다.」¹⁰⁾ 想像은 無限의

10) 제41차 국제 PEN클럽 국제 회의 전체토론회의 전체.

可能的 世界며 人類社會의 發展으로 이어지는 힘이다.

人間은 現實에 滿足하는 限 現實에 抵抗없이 適應해 나간다. 그러나 언제나 滿足할 與件만 아니고, 또 人間의 意識構造란 항상 現實에만 滿足할 수 없는 不滿이 日常的으로 일어 난다.

現實生活에서 不滿은 自己 自身에 대하여 일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大概는 自己 以外的 現實에서 일어 난다. 自己 內部에서 일어 나는 不滿은 어떤 意味에서 向上的이다.

外部 要因에서 일어 나는 境遇, 主體의 性向에 따라 어떤 者는 諦念해 버리고 妥協하려 하고, 어떤 者는 抗拒하고, 改革하려 한다. 어떤 者는 逃避해 버린다.

이 現實의 社會에서 不滿解消는 行動面에서 보다 精神的인 面에서, 다시 말하면 想像力에 의해 克服 昇華되어 간다.

잠아잠아 오지마라
 자부다가 혼란본다. ※ 자부다자—졸다가
 혼란이사 보지마는
 오는잠을 어찌할꼬.

메늘애기 자분다고
 씨어머니 訟事가네.
 訟事가도 에렵잠소 ※ 오래비—오빠
 성방도 내오래비 ※ 성방—刑房?
 吏房도 내오래비

토인한쌍 요내조카
 자수별감 요내삼춘 ※ 자수—座首
 문간사령 청간사령
 사령한쌍 요내중놈.

넌일네라 넌일네라 ※ 넌—남
 사또하나 넌일네라

訟事가든 사흘만에
 석문삼천도 맞았다네,
 二三千 맞인후에
 한두두도 더쳤이면
 요네마음 풀릴거로
 앓아자든 저잡으로
 누어자라 편지왔소.

※ 석문—刑問 또는 笞刑

※ 누어자라—누워자라

「악아악아 메늘악아
 느그우중 무섭드러
 일후에는 좋기하마.

※ 악아—아가

※ 우중—宇中, 門中

※ 좋기— 좋게

사랑뿌리 삶은풀에
 꼬들배기 심을영어
 「씨어머니 죽잡수소」,
 「악아악아 메늘아가
 두손죽이 이리썩노,
 석문삼천도 맞인입에
 벌꿀인들 안집는가.

※ 사랑뿌리—쓴풀의 이름

※ 꼬들배기—썩타귀

※ 심—죽에 넣는 쌀알 꼬들배기를
 심으로 넣어 죽을 끓였다는 말

※ 썩노—쓰나

(民研 193)

이 民謠의 즐거리는 虛構일꺼다. 시집살이의 어려움 중에서도 過勞와 잠 못자는 苦痛을 免해 보고 싶은 心思를 노래한 것이다. 苦된 시집사리 하는 不幸한 며느리는, 내 親庭 오래비나 조카가 權勢가 있었으면 하고 想像한다.

즉 實現될 것을 期待하는 非現實의 世界를 想像을 通해 間接的으로 對象과 連結되고 있다. 이 想像的 意識에 속하는 作用을 心象作用이라 한다. 實現될 것을 기대하는 非現實의 世界는 우리들 안에 存在하는 것으로 自由스런 想像力이야말로 人間存在의 自由를 衰徵하는 것이다.

우리 民謠속에 살아 온 先民들의 生活에는 現實속에 항상 想像力과 더불어 살아 온 흔적들이 너무 强하다.

想像의 自由가 現實生活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었으며 苦痛과 慾望의 昇華作用 그것이었다.

V. 結 論

詩人 바레리는 「詩는 節調있는 言語로서 絶叫, 눈물, 愛撫, 嘆息등을 暗
暗裡에 表現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民謠에서 表現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庶民들의 不幸하고도 悲
劇의인 生活과 사랑의 情恨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 民謠는 바로 詩다.

또, 윌렉(Wellek, R)은 詩의 中心的 構造原理을 “리듬과 메타포어”라고
했다.

우리 民謠에도 律調가 있고, 表現에서 隱喻的 表現과 直喻法이 主流를 이
루고 있는 譬喻法을 使用하고 있다. 現代 詩論에서도 譬喻法은 結局 直喻와
隱喻로 大別할 수 있으나, 隱喻가 廣義의 譬喻의 全部라 하고 있으나 民謠
의 表現도 詩論的인 차지에서 再檢討되어야 겠다.

특히 우리 民謠는 사무친 情恨을 隱喻的인 表現으로 이루어 졌다.

本稿에서는 知覺의 能力으로서 想像力과 創造의 能力으로서 想像力이 民
謠에서는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앞으로 밝혀
보겠다. 어쨌든 우리 民謠를 이 때까지의 研究方法에서 文藝學的 側面에서
研究되어 〈詩〉로서 民謠의 價値를 評價되어야 하겠다.